

People & Life

홍신자·삿세교수 내달 향훈 결혼



현대무용가 홍신자(70)씨가 독일 출신의 한국학자 베르너 삿세(Werner Sasse, 69) 한양대 석좌교수와 오는 10월 9일 제주돌문화공원 하늘연못에서 화혼을 밝힌다.

홍씨는 "좋은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해 삿세 교수와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며 "나보다 한국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이니, 앞으로 한국문화에 대해 더 많이 소통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한 미술전시회에서 처음 만난 뒤 몇 차례의 여행을 함께 하면서 급속히 가까워져 지난 4월 삿세 교수가 거주하는 담양의 목조 기와 한옥에서 약혼식을 올렸다. 홍신자 씨는 1967년 스톨홀름의 나이로 뉴욕에서 춤에 입문, 1973년 과격적인 형식의 무용 '제례(祭禮)'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30대 후반에 홀쭉 인도로 떠나 라즈니쉬로부터 명상과 구도의 춤을 익히고 1993년 귀국해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서 '웃는돌 무용단'을 이끌고 있다. 베르너 삿세 교수는 독일인 최초의 한국학자로 40년 이상 한국과 인연을 맺어오다 2006년 한국으로 아예 이주했다. 유럽한국학회(AKSE) 회장을 지냈으며 '월인천강지곡'을 독일어로 처음 번역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금호터미널 김현철 전무 승진 화분 기부



최근 임원 인사에서 승진한 금호터미널 김현철 전무는 28일 지인들로부터 받은 승진 축하 난과 화분을 아름다운 가게 광주·전남본부에 모두 기증했다.

아름다운 가게는 김 전무로부터 기증받은 난과 화분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금호터미널은 지난 13일부터 2주동안 투명한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해 '주식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벌였으며, 불가피하게 받은 선물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는 등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수관 조선대 치과대학장 학술 대회



김수관 조선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은 30일 오전 11시 치대 1층 대강당에서 '2010학년도 학생학술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채희중기자 chae@

정율성 생가 '블로동 163번지' 확정 기념식



정율성기념사업회(회장 강원규)는 28일 근현대 중국 3대 음악가 중 한 명으로 추앙받고 있는 정율성선생의 생가가 '블로동 163번지'로 확정된 것을 축하하며 기념식을 가졌다. <정율성 기념사업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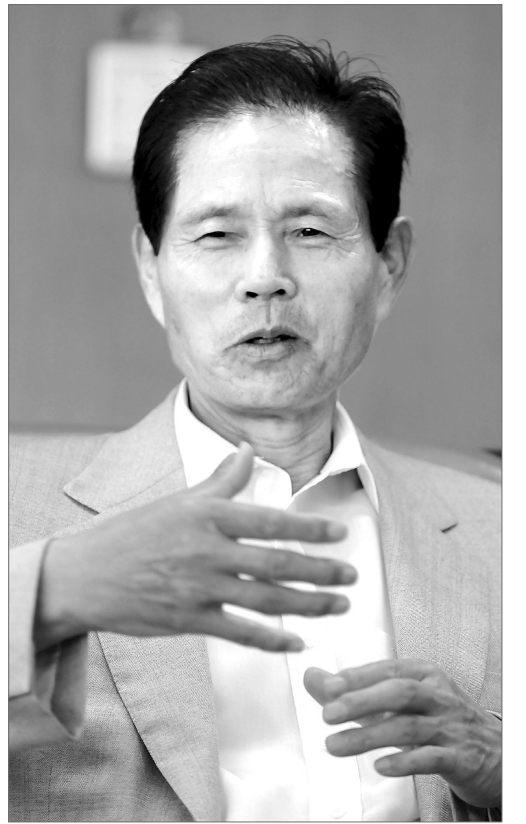
'7080 추억 배달' 나선 총장축제추진위원장 박홍석 씨

“빵집 미팅·DJ댄스 맘껏 즐기세요”

“총장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마음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느꼈으면 합니다.” 일곱 번째를 맞는 '광주 7080 총장축제'(10월 5~10일)를 일주일 앞둔 28일 박홍석(65·KBC 광주방송 사장) 축제추진위원장은 책상 위에 수북히 쌓인 축제 자료를 보면서 준비위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는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과거의 향수를 떠올리는 시민의 마음으로 축제준비를 살고 있다”며 “길게는 30~40년, 가깝게는 10~20년 전으로 돌아가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보며 오늘의 '나'를 반추해 보는 자리”라고 축제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축제에서 박 위원장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콘텐츠는 추억의 전시관을 마저 70~80년대에 살

고 있는 것처럼 재현한 것. 이 전시관은 과거 모습을 재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전문 배우 10~12명이 출생에서 고회까지의 삶을 이야기로 엮어 보여 준다. 디스코백 DJ의 댄스는 물론 빵집에서 미팅하던 추억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박 위원장은 “경북 안동 응부 탈춤마당, 여주시 거북선 퍼레이드 등 광주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다”며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중국 공연단과 인도네시아 전통민속공연 등 아시아 각국의 참여 프로그램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축제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힘든 점도 많았다. 지난 7년 동안 총장축제의 명성이나 대내외적인 신뢰 또한 높아

져 축제 규모가 커진 데 비해 예산의 규모는 너무 적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박 위원장은 “다른 자치단체의 축제가 20~30억원 규모라면, 총장축제는 7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서 “힘들었지만 모두 힘을 모아 적은 예산으로도 내실있는 축제를 만들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박 위원장은 강조했다. 총장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이 '즐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젊은이들도 부모세대의 문화를 이해해 '느림의 미학'을 배웠으면 한다”고 작은 바람도 내비쳤다. /양수환기자 yang@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자연농법으로 친환경 장 개발

억대매출 눈앞... '발효명인' 꿈

진도 귀농인 '발효숨' 김순양 대표

우리 전통 발효 식품을 연구하고 '명품장(醬)'을 개발해 생산하는 귀농인이 화제다.

주인공은 장독대와 황토방이 숲 속 한 가운데 자리 잡은 진도군 일회면 용호리 도장읍에서 '발효명인'을 꿈꾸며 발효 가공식품 연구에 푹 빠진 김순양(56)씨. 김씨는 우리 품에 좋은 건강한 발효 식품을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발효숨' 발효 요리야를 창업했다. 그는 도시에서 결혼해 외식업체를 경영하다 휴식을 위해 우연히 방문한 진도의 매료에 푹 빠져 귀농을 결심했다. 청정한 자연, 적당한 기온, 풍부한 음식재료, 오염되지 않은 물, 빼어난 자연경관 등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반했다. 귀농을 한 2000년부터 화학비료와 농

약, 제초제를 전혀 쓰지 않는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친환경 원료를 이용해 산야초 효소액, 자연발효 식초, 장아찌, 간장 등을 담갔다. 이렇게 지은 농산물, 장류, 장아찌 등 가공식품을 도시에 사는 지인들에게 보내면서 소문은 급세 퍼졌다.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졌지만, 정식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던 김씨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소득활동지원사업 덕분에 2008년 본격적인 제품 판매가 가능해졌다.

김씨는 "IT 업계 유망주였던 남편을 내 뜻대로 농촌에 와 살게 해 미안한 마음이 적지 않았다"면서 "천연 발효 음식 체험장, 발효 음식 아카데미, 김장문화회 운영



등 전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차별화된 장류 사업장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현재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그는 억대 귀농인의 반열에 오를 날이 멀지않았다. /연합뉴스

“지구 파괴 인간, 침팬지만 못하다”

침팬지 代母 제인 구달 박사 방한

“우리가 모두 환경 보호에 참여할 때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침팬지 연구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76) 박사가 한국을 방문, 28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카페에서 '희망의 자연' 출간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희망이 있다고 믿지만 우리 모두가 (환경 보호에) 참여할 때에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를 아끼는 등 개개인이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는 데 모두가 기여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 침팬지와 인간의 유사성에 놀란다. 그러나 수많은 유사점에도 인간은 침팬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능이 뛰어난 생물"이라면서 "우리가 지구 상에서 걸어 다니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가장 똑똑한데 어떻게 이 세상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1960년 단신으로 아프리카에 건너가 침팬지 연구에 평생을 바친 구달 박사는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환경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구달 박사가 이끄는 세계적인 환경운동 '뿌리와 새싹' 프로그램은 현재 전 세계 121개국의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구달 박사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

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가장 똑똑한데 어떻게 이 세상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사람들은 지혜를 잃고 있다. 오늘 하는 일이 장차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감안해 결정 내리는 게 지혜인데 당장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만 생각해 결정을 내린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담양군, 침수피해 서울 양천구에 위문품



담양군은 최근 서울지역에 내린 기습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양천구·용산구·성북구에 27일 위문품을 전달했다. <담양군 제공>

조선이공대 개교 47주년 교직원 포상



조선이공대학(총장 김형곤)은 28일 개교 47주년을 맞아 소회의실에서 장기간속 포상을 실시했다. 30년 근속표창은 조강석교수 등 10명이, 20년 근속표창은 조순계교수 등 2명이다. <조선이공대 제공>

녹동농협 조합원 자녀 30명에게 장학금 600만원



녹동농협(조합장 김광선)은 최근 농협 회의실에서 고등학교 3학년 에 재학중인 조합원 자녀 30명에게 장학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살아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박준성(사랑방신문대표)·김경열씨 장남 천정근 김희수·조민정씨 장녀 현경양=10월 2일(토) 낮 12시 알리앙스 1층(금강홀)
▲박영방(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장)·정중순씨 장녀 혜옥양 명례식·모덕식씨 장남 성훈군=10월 2일 오후 1시 목포 웨딩갤러리 1층(아일랜드)
▲주영선(도교유정)·박성욱씨 차남 현수(광산구 관광체육시설 과장)군 정현수(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시절부)·조문자씨 장녀 지향(차광중 교사)양=10월 2일(토) 오후 1시10분 삼부지구 조선컨벤션웨딩 1층(영빈관)
▲손정옥·박일순씨 장남 상원(연합뉴스 광주·전남취재본부 기자)군 최성권·위경애씨 장녀 혜진(KBS

- 광주방송총국 기자)양=10월 3일(일) 낮 12시 서구 KBS 광주방송총국 공개홀.
동창·동문회
▲비아초등학교 총동창회 친선체육대회(회장 이정일)=10월 3일(일) 오전 10시 모교대 운동장(우천시 대강당) 062-954-3427.
알림
▲북부비만, 피부관리 셀프 무료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 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습관성 도박(경마, 인터넷 도박, 사행성 오락게임, 주식 등) 관련 전문상담 치료실시=본인 및 직계가족 무료. 상담치료와 입원치료 전액 무료. 전문심리상담가와 임상전문가가 직접 상담. 광주심리상담연구소. 062-527-3400, 3403.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광주중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중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

- 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본점 6층.
모집
▲한국노년자립회 사회봉사 회원=현직에서 은퇴 및 퇴직하신분으로 중·장년의 인권과 권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사·헌신할 수 있는 의원 및 전담복지지역 지휘하실분 환영. 062-223-1357, 010-9773-2456
▲충만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

- 942-9982.
▲오치 배드민턴 클럽 회원=오후 7시30분~10시 30분까지 우산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문정 배드민턴 클럽 회원=오후 7시30분~10시30분까지 문산초·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풋볼프 회원모집 및 친선경기 주장원 선발=발로 불을 차 출에 넣는 풋볼프 회원 모집,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뒤 풋볼프장. 010-4604-4608.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희망) 학생=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무료 강의. 서방시장안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인우회 회원=광주지역 전·의경 전역자들의 모임, 회장 019-277-0007.
부음
▲백영희씨 별세 도인(남백산건설 대표)·금임·금례·남숙·순심·남임·순임씨 부친상=발인 30일(목)

- 장흥군 장흥읍 중앙장례식장. 061-863-4444.
▲박옥진씨 별세 인병회(사업)씨
모친상 정순이(광주미협회장 회장)씨 시모상=발인 30일(목)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최병용·병수·병희씨 부친상 김중경·박동순·김정배·김광수씨 부친상 발인: 9월29일(수) 08시30분 장지: 담양고서면선영연락처: 250-4412
▲박승민·승홍·승룡·승철씨 모친상 조성영·장연섭 씨 부친상 발인: 9월29일(수) 08시100분 장지: 고흥읍 선영연락처: 250-4409

- ▲최용·홍준씨 모친상 류재수·이대진 씨 부친상 발인: 9월30일(목) 08시100분 장지: 고흥읍 금산면 선영연락처: 250-4407
▲김윤진·동준·석준씨 모친상 한용재 씨 부친상 발인: 9월30일(목) 10시100분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50-4405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밧니다 弔
故 이창수 님(남/86세)
子/子婦: 이성춘·지향단. 광춘·정경자. 봉춘·황영순. 영춘·이미영.
女/ 婿: 이진숙·김병철.
호실: 201호 • 발인: 9월29일 • 장지: 영락공원
故 안원주 님(남/41세)
子: 안민수, 인수. 女: 안원국.
호실: 101호 • 발인: 9월27일 • 장지: 영락공원
故 이창수 님(남/86세)
子/子婦: 이성춘·지향단. 광춘·정경자. 봉춘·황영순. 영춘·이미영.
女/ 婿: 이진숙·김병철.
호실: 201호 • 발인: 9월29일 • 장지: 영락공원
故 고재우 님(여/76세)
子/子婦: 안정복·김도현. 정기·천순덕. 정국·유인순.
女/ 婿: 안옥자·조흥수. 옥선·최봉남.
호실: 201호 • 발인: 9월29일 • 장지: 순천송림공원
故 오용석 님(남/38세)
子: 오윤석. 女: 안원국.
호실: 102호 • 발인: 9월29일 • 장지: 영락공원
마음까지 편안히 - 금호장례식장 ☎(062)227-4000

謹 故人의 冥福을 밧니다 弔
▲최병용·병수·병희씨 부친상 김중경·박동순·김정배·김광수씨 부친상 발인: 9월29일(수) 08시30분 장지: 담양고서면선영연락처: 250-4412
▲박승민·승홍·승룡·승철씨 모친상 조성영·장연섭 씨 부친상 발인: 9월29일(수) 08시100분 장지: 고흥읍 선영연락처: 250-4409
▲최용·홍준씨 모친상 류재수·이대진 씨 부친상 발인: 9월30일(목) 08시100분 장지: 고흥읍 금산면 선영연락처: 250-4407
▲김윤진·동준·석준씨 모친상 한용재 씨 부친상 발인: 9월30일(목) 10시100분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50-4405
그린장례식장 24시간 대기 / (062)250-4455